

IPTV-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 애꿎은 이용자만 피해

LGU+, CJ ENM 제공 콘텐츠 중단
CJ ENM,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유료방송 가입자 시청권 침해 우려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인터넷TV(IPTV)와 CJ ENM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방송 중단 사태까지 번지며 이용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11일부터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모바일tv'에서 제공 중인 tvN, 올리브, 채널 디아, 투니버스, 엠넷 등 CJ ENM이 제공하는 총 1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했다.

LG유플러스는 "방송 제공을 위해 CJ ENM과 지속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다만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휴사가 실시간 방송 공급을 중단할 수 있어 안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OTT '시즌'을 보유한 KT도 같은 갈등을 겪으면서 향후 시즌 내 CJ ENM 콘텐츠 실시간 방송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CJ ENM은 LG유플러스에 IPTV 프로그램 사용료와 모바일 플랫폼 사용료를 별도 계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OTT인 'U+모바일tv'가 IPTV와 연계·파생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용료 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PTV 업계와 CJ ENM 간 콘텐츠 갈등은 올 초부터 격화됐다. CJ ENM이 IPTV 사업자에 대해 전년 대비 25% 프

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한 이후부터다.

이를 두고 IPTV 3사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최근 국내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자사 콘텐츠 공급 중단을 불모로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일삼으며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 공급 행태는 불공정한 독점적 권리의 남용이며 부당한 이유로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청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7일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간 담화를 열고 중재에 나섰지만 CJ ENM이 공개적으로 "IPTV사들은 (사용료 지불에) 인색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비판에 나섰다.

이를 두고 IPTV 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오만과 욕심에 가득차 있다"고 반박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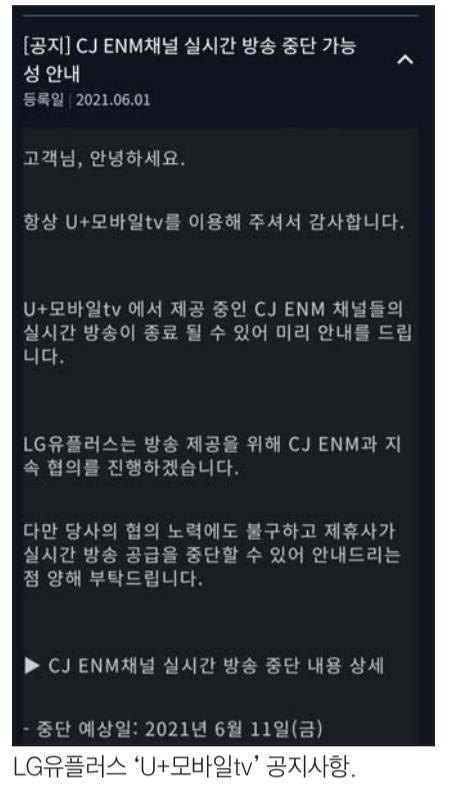
이는 결국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면 결국 피해는 OTT나 유료방송 가입자들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CJ ENM 뿐 아니라 지상파 또한 주문형비디오(VOD) 가격인상에 나섰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 케이블TV,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가 제공하는 지상파 3사 VOD 가격이 약 33% 오른다.

대상은 오는 18일부터 방영되는 신규 프로그램 및 회차부터다. 18일 이전 방영된 프로그램은 최신 방영작부터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디지코 캠핑'에 참가한 가족들이 KT 동영상서비스, '타조(TAZO)' 공유자전거 등을 이용하며 캠핑을 즐기고 있다. /KT

KT, 친환경 차박 '디지코 캠핑' 성황리

관광공-안성시 협업

KT는 전기차로 차박 캠핑을 즐기며 KT의 각종 디지털플랫폼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코(DIGICO) 캠핑' 두 번째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디지코 캠핑은 한국관광공사, 안성시와 협업해 만들어졌다.

최근 도시를 떠나 야외에서 즐기는 캠핑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경기도 인근이 주목받고 있다. 4월에 이어 열린 이번 디지코 캠핑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장소형 잠재관광지 '안성맞춤랜드'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참여한 가족들은 친환경 전기차를 이용한 캠핑 현장에서 'AI 쿠링로봇'의

비대면 음식 제공 서비스를 체험하고, KT의 동영상서비스 '시즌'의 AI 큐레이션 활용해 영화와 드라마 등을 추천받아 관람했다. 또 'KT 비즈미트'로 서울에서 진행한 '랜선쿠킹' 클래스에 참여해 저녁 요리를 하며 캠핑을 즐겼다.

이 밖에도 공유자전거 플랫폼인 '타조' 자전거를 타고 안성맞춤랜드 테마파크 내의 주요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안성맞춤 전문과학관에 들려 천체를 관측하기도 했다. 그리고 방송인 기프로그래프 '비긴어게인2'에 출연한 가수 '정세운'이 깜짝 게스트로 참석해 참여자들을 위한 라이브 공연을 선사했다. 정세운이 출연한 공연은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 TV'에서도 볼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KB, '호국보훈의 달 특집' 편성

SK브로드밴드는 현충일을 맞아 Btv 케이블 지역채널을 통해 '호국보훈의 달 특집'을 오는 12일까지 방송한다고 6일 밝혔다.

특집 기간 동안 오후 10시에 서울, 대구, 중부, 부산 지역 보도제작국에서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와 프로그램 교류 중인 국방TV와 불교TV에서 제작한 다큐와 드라마를 전국 동시 편성한다.

제66회 현충일인 이날은 '치열했던 비극의 역사, 한국전쟁'을 방송한다. 한 사람의 삶만큼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전

쟁을 몸소 겪은 세대는 사라지고 있다. 전쟁이 영화에서나 접하는 낯선 배경이 되고 있는 요즘 한국전의 흔적을 통해 비극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7일과 8일 이틀간은 조선 불교 선구자 사명대사와 함께 나라를 지킨 임진왜란 승병들의 일화를 드라마로 제작한 '사명대사' 1부와 2부를 방송한다.

9일 방송하는 '6.25 전쟁의 기억' 편은 6.25 참전용사들이 가장 치열한 교전이 벌어진 천안삼거리 당시의 전투이야기를 들려준다. /김나인 기자

LGU+, 양자내성암호로 공연 암표거래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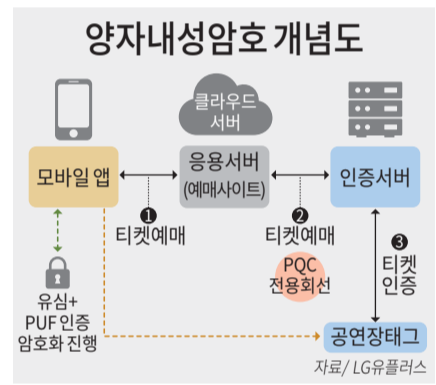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사업
거리 제약 없어 해저케이블 구간 적용

LG유플러스는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양자보안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공연·엔터테인먼트 분야 응용서비스에 양자보안을 확대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1년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에 LG유플러스는 ▲코워버(10G급 전송장비) ▲서울대학교 크립토탭(PQC 알고리즘) ▲ICTK(PUF) ▲드림시큐리티(인증·암호화 모듈) 등 국내 파트너들과 함께 참여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산업·의료분야 전용회선에서 검증한 양자내성암호를 공연·엔터분야 응용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한 엔드 투 엔드 암호키교환 방식은 전송거리에 제약이 없고, 향후 해저케이블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양자 키교환(QKD)과는 달리 이미 구축한 전송망에 선로를 추가로 구성하거나 중계 노드를 만들 필요 없이 양단 구성만으로 보안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전송의 전 계층과 국내외 고객용량·기간·엑세스·모바일코어망 등 각종 통신망, 비대면 국제회의·화상수업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USB에 넣었던 양자 난수기반 물리복제방지칩(PUF)을 유심(USIM)과 IC카드에 탑재해 개인정

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공연티켓 예매·구매자 인증 강화, 안면인식 활용 산업체 출입보안 등 응용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PUF 유심은 복제가 불가능한 물리적 고유키를 이용해 인증서를 내장하는 PUF 칩이 유심 안에 들어가 소형 디바이스, IoT기기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이 공연티켓을 예매하면 이에매정정보가 양자내성암호가 적용된 전용회선을 거쳐 LG유플러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통해 구매정보 서버로 전달된다.

공연 전 고객이 티켓을 발급할 때는 양자보안이 적용된 PUF 유심 인증기술을 통해 티켓 구매자임을 인증하게 된다. 공연 티켓의 암표거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최택진 기업부부장(부사장)은 "국내 다양한 산업군에서 '양자보안' 체계를 하루 빨리 갖추 수 있도록 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KT, 골프대회서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행복동행 함께하는 첫 발걸음' 운영

SK텔레콤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핀크스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오픈 2021' 골프 대회에서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행복동행 함께하는 첫 발걸음'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행복동행 함께하는 첫 발걸음'은 보호 종료 청소년의 독립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보호 종료 청소년이란 만 18세가 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을 말한다.

SKT는 제주시와 제주시 산하 흥익 아동복지센터, 제남아동센터, 시온빌 자립생활관 등과 함께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게 'SK텔레콤 오픈 2021' 골프 대회 현장운영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대회 참가 선수들이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쌓이는 기금을 통해 장학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 27명은 'SK텔레콤 오픈 2021' 기간 동안 스코어 보드 운영, 현장 통제 등 대회 운영 업무에 직접 참여해 사회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또 SKT는 보호 종료 청소년의 독립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행복 버디 기금'도 운영한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버디를 기록할 때 마다 적립되는 기금을 모아 장학금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KT, 월드컵 2차 예선서 버블 키즈 에스콧트 선배

KT는 지난 5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기에서 '버블 키즈 에스콧트'를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KT는 일반적으로 선수들과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입장하는 '플레이어 에스콧트'를 버블 안에 있는 어린이가 하이라이프하며 한국 남자축구대표팀 승리를 응원했다.

올레TV 키즈랜드와 함께하는 버블 키즈 에스콧트는 승리를 응원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담아 남은 2경기(스리랑카전, 레바논전)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김나인 기자